

언론 보도 사항

【2016년 4월 22일】

< 목 차 >

1.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고성·양양소방서 방문 - 강원일보
 2. 강원소방, 화학사고 대비 합동소방훈련 - 뉴스1, 뉴시스
 3. 동해 신재학 소방장 “KBS119상” 본상 수상 - 강원신문, 강원일보
 4. 학교 누전위험 무방비 - 도민일보
 5. 소방서 언론보도 - 뉴시스, 강원일보, 도민일보
-

강원도 종합상황실

강원일보

도의회 기행위 고성·양양소방서 방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21일 고성소방서와 양양소방서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기행위 고성소방서 방문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함종국)는 21일 고성소방서를 방문, 남궁규 소방서장으로부터 지난해 5월 개서 이후 추진되고 있는 소방활동과 관련된 현안을 보고받고 봄철 화재예방대책,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당부했다

강원소방, 화학사고 대비 합동소방훈련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21일 강원 춘천시 소양정수장에서 테러 등 화학사고 대비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

소양정수장에서 염소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 긴급기동팀과 춘천소방서 생화학 인명구조차량이 투입되는 등 관계자 20여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응매뉴얼에 기초한 제독훈련을 숙달하는 등 구조대원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강원소방, 화학사고 대비 합동소방훈련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21일 테러 등으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기반시설인 소양정수장에서 염소가스 누출에 따른 합동소방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춘천=강원신문】 신호진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동해소방서 119구조대에 근무하는 신재학 소방장(사진· 46)이 2016년 제21회 KBS119상 본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신재학 소방장은 1996년 소방공무원 구조대원으로 특채되어 각종 화재·구조·구급현장에 2,500여회 출동,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이고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자타가 공인하는 구조분야 전문가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남양동 중앙시장 붕괴, 남양동 LNG 가스폭발사고 등 동해·삼척 대형 재난사고 시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에서 헌신적이고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에 귀감이 되었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주관하고 국민안전처가 후원하는 KBS119상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인 구조·구급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119대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21회째를 맞고 있다.

본상 수상자 신재학 대원은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며, 봉사하는 마음과 사명감으로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30일(토) 오후 12시 10분부터 60분간 KBS1TV를 통해 생방송되며, 전국에서 대상과 본상을 수상한 소방공무원 총 21명에게는 상금과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진다.

江原日報

2016년 04월 22일 금요일
A15면 사람

동해소방서 신재학 소방장 KBS119상 수상자로 선정

도소방본부(본부장:이흥교)는 동해소방서 소속 신재학(46·사진) 소방장이 제21회



KBS119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신 소방장은 1996년 소방공무원에 입문해 2,500여 회의 화재, 구조·구급현장에 출동한 자타공인 구조 분야 전문가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열리고 이날 수상하는 소방공무원 21명에게는 상금과 1계급 특진이 주어진다.

신재학 소방장은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봉사하는 마음과 사명감을 갖고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학교 누전위험 무방비

전자칠판·영상기기 급증 전력 과부하 화재 우려

강원도내 일부 학교가 전자교탁·칠판과 컴퓨터, 영상기기 등 정보통신장비를 대거 설치해 놓고 관리는 제대로 하지않아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등이 우려된다.

지난 20일 오전 11시52분쯤 춘천 유봉여중 본관 2층 가사실습실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실습실 내부 전체를 태워 12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직후 학생과 교직원 등 530여명이 운동장으로 긴급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14명의 학생이 연기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문이 잠긴 실습실에 있던 전자교탁에서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이처럼 일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자교탁·칠판 등 정보통신장비를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전문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는 1개 교실마다 대형 TV와 컴퓨터, 모니터, 에어컨, 선풍기, 영상기기 등 5~6개씩, 한 학교에 평균 200대 이상의 기기가 설치돼 있어 전력 사용량 과다로 인한 화재가능성이 높다.

또 일선 학교가 편의에 따라 전

기교탁 등을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전체 학교의 정확한 구입 및 활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춘천소방서 관계자는 “전자기기가 학교에 대거 보급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 전력 과부하나 누전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부하가 걸릴 경우 각 학교마다 설치된 차단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기교탁·칠판의 경우 비용이 워낙 비싼 탓에 이를 이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재

춘천소방서,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춘천소방서는 21일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안건 논의와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창균 농협 춘천시지부 총무과장과 이석철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장, 이진식 롯데마트 춘천점 부지점장이 새 회원으로 위촉됐다.

시민안전관리협의회는 지난 2008년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자율조직의 화재예방정책 참여확대와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민간자율안전관리체제의 핵심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원주소방서, 소방공무원 정기 체력검정



원주소방서는 21일 치악체육관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 소방공무원 정기 체력검정을 실시했다.

철원소방서, 문화재 화재예방 협의회 개최



철원소방서는 21일 철원 동송읍 도피안사에서 철원군과 전기·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5개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 화재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봄철 화재예방 분야별 안전대책 및 대응방안 ▲문화재시설 합동점검 추진 ▲화재방지시스템 구축 및 감시기능 강화 ▲각 기관별 협조 추진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기상화재를 대비한 합동 소방훈련 참관으로 이어졌다.

또 회의에 이어 관내 문화재 보유사찰 2개소(도피안사, 심원사)에 대한 분야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찰 관계자의 의견·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강원도민일보

2016년 04월 22일 금요일
013면 지역



횡성의소대 소방기술 경연 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 대회가 21일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염동열 국회의원,한규호 군수,한창수 군의장,최혜원 교육장,한승달·진옥화 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성소방서, 토성의용소방대 생활안전강사 엄옥경



고성소방서(서장 남궁규)는 지난 20일 오후 3시 토성여성의소대 소속 생활안전강사를 초빙해 죽왕면 공현진초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첫 강의를 한 엄옥경 생활안전강사는 아이들에게 소소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고 특히 심폐소생술 실습에서는 신고부터 인공호흡까지 그 동안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해 온 실력을 가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아이들이 위급상황에서 신고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119신고와 동시에 정확한 신고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강원119신고앱'을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설치유도 해 골든타임의 기초를 마련했다.

소소심 교육을 진행한 엄 강사는 “안전한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 스스로 자랑스럽다”며 “지속적으로 강사로 활동해 안전고성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인제소방서, 소방차량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인제소방서는 21일 긴급출동 소방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 주변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7회 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행사가 21일 횡성실내체육관에서 한규호 군수와 염동열 국회의원, 한창수 군의장, 최혜원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숙 횡성소방서장, 함종국·진기엽 도의원, 의용소방대원, 가족,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의소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성료

【횡성】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 (대장:한승달, 진옥화)는 21일 횡성실내체육관에서 제7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9개 읍·면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 끌기와 심폐소생술, 부목고정 응급처치, 수관연장 방수자세, 단체줄넘기 등 6개 종목에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특히 소방호스 끌기, 수관연장 방수

자세 및 단체줄넘기 종목 우승팀은 오는 9월 개최되는 도의용소방대한마음체육대회에 횡성 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규호 군수와 염동열 국회의원, 한창수 군의장, 최혜원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숙 횡성소방서장, 함종국·진기엽 도의원, 의용소방대원, 가족,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홍천소방서, 실제 차량화재 가정 진압훈련



홍천소방서는 21일 홍천읍 하오안리 늘푸름 한우프리자앞 도로에서 원인미상 차량화재로 1명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한 실제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출동로 확보 및 5분 도착률 제고 ▲폐차를 활용한 실제화재 진압훈련으로 화재진압 전술능력 향상 ▲팀워크 숙달을 위한 팀 단위 훈련으로 현장 안전사고 예방·화재현장 효율적 대응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

팀단위 전술능력 향상을 위한 이번 실제화재 진압훈련에는 현장대응과와 양덕원119안전센터 직원 22명과 펌프차량 등 차량 총 6대가 동원됐다

의소대 정기총회 참석

◇박태원영월소방서



장은 22일
오후 4시
상동읍사
무소 대회
의실에서

열리는 영월의용소방대
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